

현 군수 등 후보 9명 중 6명 민주당... 경선 치열 예고

장흥군수

장흥군수 선거전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무르익기 시작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김성(59) 군수가 무소속이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군들이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김 군수가 지난해 9월 민주당 복당이 허용되면서, 민주당 후보 경선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경선 후보군으로는 재선 도전에 나서는 김 군수와 박병동(62) 전 여성경찰서장, 사순문(62) 전 통일부 보좌관, 신재춘(60) 전 전남도청 중소기업과장, 조재환(59) 전 장흥군청 의사과장, 김현복(56) 장흥군변영회장 등이 이미 출마선언을 했거나 경선 참여의 뜻을 밝혔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김 군수는 국회의원 비서관, 재선의 전남도의원 등 풍부한 정치경력과 지역에서 30여년간 담아놓은 조직기반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 복당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과 기존 민주당원들이 복당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지역 내 정치적 갈등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박병동 전 여성경찰서장은 서울과 전남



김성 군수



김현복 변영회장



박병동 전 서장



사순문 전 보좌관



신재춘 전 과장



조재환 전 과장

민주당 김성·박병동·사순문·신재춘·조재환·김현복

민평당 김상국, 민중당 최경석, 무소속 정중순 경쟁

지역에서 경찰 간부를 지낸 뒤 정년퇴임 이후 지난 2016년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민심을 다져왔다.

10년전 고향에 내려와 두차례 지방의원 출마 경력을 갖고 있는 사순문 전 통일부 보좌관도 바다민심을 다져온 장점을 내세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도전에 나선다.

30여년 간 전남도청 주요 요직을 맡는 등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강점을 갖고 있는 신재춘 전 전남도 중소기업과장도 출마표를 던졌다.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9급에서 사무관까지 37년간 장흥군 산하 기관에서 지방행정 경험을 가진 조재환 전 장흥군청 의회 사무과장도 지난 2016년 일찌감치 명예퇴직을 하고 바다민심을 다지고 있다.

애초 국민의당 소속으로 선거를 준비해 왔던 정중순(63) 전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국민의당이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져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김상국 전 국장



최경석 전 도의원



정중순 전 본부장

서울시 광진구 국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김상국(63)씨는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도 도의원 경력을 갖고 있는 최경석(56) 전 전남도의회이 최근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최경석 기자 cki@kwangju.co.kr / 정중순=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현연·지연 엮힌 표심이 선거결과 좌우

유권자 몰표 성향 지역

후보 6명이 남부권 출신

장흥지역 선거는 현연과 지연에 엮힌 표심이 향후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흥군은 지리적으로 장흥읍을 비롯한 한 북부(5개 읍·면)와 남부(5개 읍·면) 등 2개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유권자 숫자는 북부와 남부권이 비슷하지만, 현수는 남부권의 유권자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쏠리느냐에 따라 판세가 좌우된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남부권 유권자들은 그동안 한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는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부터 치러졌던 군수 선거에서 단 한차례도 북부권 출신 후보가 군수에 당선된 사례가 없었다. 오는 지방선거에 나선 9명의 출마예정자 가운데

데 김성 군수 등 6명이 남부권 출신이다.

현재 지역에서 당 지지율이 높아 당선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경선 주자 6명 가운데 5명 역시 남부권 출신이다.

또한, 장흥지역은 지난 1992년 총선과 정에서 나타난 씨족 선거 문화가 군수(단체장)선거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95년 단체장 선거전 이후 가락성 씨(김해김씨, 인천이씨)와 영광김씨 두 씨족들이 번갈아 군수에 당선됐다.

이를 두고 대다수 주민들은 “특정 지연과 현연 등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우되는는 안된다”면서 “능력있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번 장흥군수 선거에서 표심의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경석기자 cki@kwangju.co.kr

정중순=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현직 프리미엄 벽 막힌 후보들 탈당... 무소속 후보 난립

곡성군수

지지가이 공공 행정 중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입은 유근기(57) 곡성군수가 일찌감치 재선 준비에 들어갔다. 유 군수에 맞서 당내에서는 김광동(59) 전 전남창조혁신센터PD가 도전장을 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조상래(62) 전남도 의원과 이영진(66) 전 곡성군의회 의장이, 정의당에서는 박용두(51) 곡성교육희망연대 대표가 맞선다. 유 군수의 현직 프리미엄 벽에 막힌 여러 후보들이 탈당, 무소속으로 도전한다.

유 군수는 꾸준히 바다 민심을 다져온 것이 강점이다. 유 군수는 복지, 문화, 자치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 최초의 천원버스와 효도택시 운영으로 초고령층 노인들과 오지마을 주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유 군수에게 경선 도전장을 내민 김광동 전 전남창조혁신센터PD는 지역산업 정책 기획, 평가 관리, 기업지원 등 총괄책임자로 수년간 일한 경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조상래 전남도 의원과 이영진 전 곡성군의회 의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곡성정년회의



유근기 군수



김광동 전 PD



이영진 전 의장



조상래 도의원



박용두 대표



강대광 군의원

민주당·민평 당내 경선 치열...정의당 1명·무소속 4명

인구 늘리기·섬진강 기차마을 활성화 등 공약 제시

소 회장을 지냈다. 조상래 도의원은 군의원·도의원에 이어 군수 도전으로 체급을 높여가고 있다. 그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두루 경험했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조직이 탄탄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농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 관광객들이 힐링하며 즐기는 6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내놨다.

이영진 전 의장은 16년간의 행정경험과 두번의 군의회 의장을 지낸 의정활동으로 행정과 지역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정의당에서는 옛 민주노동당 전남도지사후보로 출마했던 박용두(51) 곡성교육희망연대 대표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성과 농업 및 교육현안에 대한 식견을 내세우며 바다 민심을 훑고 있다.

무소속 양병식(60) 전 곡성군 복지실장은 6개 읍·면장을 거치며 꾸준히 주민과 일선 행정경험을 몸으로 부딪혀 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무소속 강대광(56) 곡성군 의원은 3선을 거치며 풍부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 의원은 모든 상임위와 부의장을



양병식 전 실장



박정하 대표



신상선 전 지부장

지내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소속 신상선(58) 전 농협 곡성군지부장은 농협 출신답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지금 1000억원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출향인이 돌아오는 곡성을 만들겠다고 지지지를 모으고 있다. 무소속 박정하(63) 곡성신문 대표는 3번째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연임 허용하지 않는 표심... 재선 여부 관심

구례 다음으로 인구 적어

곡성읍 투표가 당락 갈라

곡성은 좀처럼 군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동안 여섯번의 군수선거에서 고현석 군수만이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민선 초대 조형래 군수는 새정치국민회의 고현석 후보에게 일격을 당했고, 고 군수는 재선에 이어 3선에 도전했지만 초대 군수를 지낸 조 군수에게 78표 차로 지지 당했다.

4년 뒤 선거에서는 조 군수가 무소속 허남석 후보에게 막혔고, 허 군수는 유근기 군수에게 패하면서 3차례 선거 연속 연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근기 군수의 재선 성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곡성은 전남에서 구례 다음으로 인구가 적다. 그만큼 선거에서 한 표 한 표의 움직임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곡성 전체 선거인수 2만6872명 가운데 곡성읍 선거인수가 635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옥곡(3585명), 입면(2162명), 석곡(2147명)면 순이다.

최근 3차례 선거에서 곡성읍을 잡은 후보가 군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곡성군의 최대 과제는 인구 문제다. 곡성군의 현재 인구는 3만220명으로 3만 붕괴 위험에 처했다. 어떻게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유입할 것인지 정책대결도 주목된다.

인구를 늘려야만 지역에 활력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곡성=김계중기자 kjkim@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